「新宗教研究」제6집, 韓国新宗教学会, 2002. (2005) 5.

仙道系列의 豫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안후상 / 고창북고

1. 서 론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믿고,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대체로 직감의 차원이나 계시와 같은 豫言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예언과는 달리 과학적이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미래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시작되었으며, 사회과학에서 미래학이라는 독자적 학문이 출발한 것도 근자의 일이었다.[1] 근자에 시작되었다는 미래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험해 온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의 변동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 변동에는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으며, 그것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즉, 과거의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의 변동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다.

직감에 의지한 단순한 예언에서 변동의 추세를 예측하는 미래 연구로 옮아가는 漸移期의 예언으로 선도계열의 예언을 들 수 있다. 선도계열의 예언에는 종교성이 다분한 단순 예언 외에도 사회 변동의 추세를 예측하는 미래 연구가 혼합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普天教 이후의 殘黨인 仙道系列의 조직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예언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예언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 이들 운동의 성격, 더 나아가 선도계열의 성격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운동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 성과를 배제한, 운동이 일제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변 기록들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참고로, 선도교란 증산의 세계관과 사회관을 지향했던, 보천교의 조직 운동을 경험했던 잔당들이 결성한 종교적 결사체를 말한다. 仙道라는 것도 그들 스스로가 불렀던 용어이다. 儒佛仙에서 仙을 따 仙道라 스스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일제나 세간에서 또한 그렇게 불렀다는 점으로 볼 때, 본고에서 '선도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싶다. [2]

2. 부안 元君教 사건

1) 사건의 概況

원군교는 증산을 신앙해 오던 홍순옥이 1930년에 만든 비밀결사체이다. 증산을 교조로 하고 그의 형 홍순문을 교주로 하는 元君教는 1935년 5월경에 일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형식상 조직 해산을 결정하였다가, 중일전쟁이 발발(1937.7)하면서 '後天仙境開闢'을 내세우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후천선경개벽이란, 증산이 재림하여 조선을 독립시키고 不平不滿 없고 不死不滅의 5만년 新天地가 시작된다고 하는 일종의 예언이다. 홍순문은 증산이 자신을 통해 교단을 통괄하도록 돼 있다며, 결사 조직을 확대하는 등 수 차에 걸쳐 수련과 함께 집회를 주도하였다. 1942년 2월에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사는 부안군 산내면 지서리 산속에서 국채준 · 김만암 · 강재숙 · 이내룡 · 김재천 · 강양원 등과 함께 증산의 재림과 조선의 독립을 준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패망을 기원하였으며, 1942년 2월에도 같은 마을 홍순문의 집에서 天地公事라는 집회를 개최하여 일제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는데, 탄압의 명분은 그들이 말한 '불온한 예언'이었다. 급기야는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면서 조직원 다수가 구속되고, 심지어 옥사자까지 발생하였다. [3]

1942년 당시 부안경찰서에 근무했던 黃石顯은 '증산교를 빙자하여 사람들을 모아 놓고 독립 사상을 고취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조선이 곧 독립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4]

2) 인물과 예언

담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과 경성을 전전하며 전차 운전을 하던 빈농 출신 국채준은 결사체를 사실상 이끌었던 홍순옥의 장녀와 결혼하였다. 중농 출신으로 한학을 하였던 田鳳均은 고향에서 면협의회원을 지낸 식자로, 1930년경에는 동화교 교인이었다.[5] 중농 출신인 姜陽元은 7년 간 한학을 하였던 識者로, 당시 전봉균과 함께 결사체 내에서 대중 연설과 교리 또는 이론을 주도하였다. 한학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본적지인 옥구 성산에서 한약상을 하기도 하였다. 1941년 12월 20일경에 부안군 산내면 지서리로 이주하였다가 홍순문을 알게 되면서 일제를 부정하는 목적의 결사체인 원군교에 적극 가담하였다.[6] 이외, 류상과 김종순, 서기표 등은 보천교인으로 있다가 보천교가 소멸되자 원군교에 가담했던 인물들이다.

증산을 신앙하던 이들과 보천교 조직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 일부가 원군교에 가담했으며, 이들은 주로 일제를 부정하는 목적의 정치적 집회를 수십 차례나 가졌다. 홍순옥, 국채준, 강양원, 전봉균 등은 인근 석포리의 청련암에서 일제의 국체를 부정하고 신세계의 도래를 기원하는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들의 일련의 이러한 혐의 외에도 독립 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인정돼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7]

이들은 집회(1941. 5)에서 '세계는 큰 전쟁에 휘말리나 수년 내로 끝을 보게 되는데, 그때 증산이 재림하여 天地人 3界를 장악하며, 이때 우리나라는 세계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교도들은 증산의 수제자가 되어 후천 5만년 동안 不老不死하며 세계 인류를 지도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때를 대비하여 동서남북의 49임원을 선임하는 등 강력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며, 홍순옥 · 김만암 · 전봉균 · 박승주 등을 49임원으로 정하였다. 이후에도 '지금의 전쟁은 증산이 짜놓은 운도에 의해 끝남과 함께 후천 선경 5만년의 세계가 시작되며, 조선은 독립하고 교인들은 증산의 수제자가 되어 세계 인류를 지도하게 된다' 는 예언으로 민중의 결집을 시도하였다.[8]

3. 평강 仙道教 사건

1) 사건의 槪況

仙道教는 보천교 간부였던 金洪圓이 1928년에 결성한 비밀결사체다.[9] 이 결사체는 '어느 시기에 교주가 평강군 현내면 이목리에 교도 18,000명을 이주시키고서 不食長生의 術을 이들에게 전수하여 신선이 되도록 한다' 며, '신선이 된 자는 萬王의 王이 됨으로 현재의 정치를 벗어나 교도만의 국가를 조직한다' 는 결사체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 전부가 본교를 믿게 되었을 때 조선은 완전히 조선인의 손에 의해 통치된다' 며 민중을 대규모로 조직하려 하였다.[10]

김홍원은 보천교 입교 당시의 동 교인이었던 李龍奎, 徐仁煥, 裵洙謙 등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여, 3년 만인 1931년 봄경에 교도 1,080명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1934년 12월경에는 약 7천명, '1935년 3월 15일이면 1만 8천명에 이를 예정' 이라 언급돼 있을 정도로 급격한 교세 확장이 이루어졌다.[11] 평강군 縣內面 梨木里 長池浦를 정감록에서 말하는 성지로 인정하고, 1931년 봄 경부터 한옥 9채를 이곳에 건립하였다.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며 교인의 이주를 도모하였다.

일제는 '자신들의 조직을 종교라고 말해왔으나 사실은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한 결사체이다' 며,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자가 없으니 반드시 성공한다' 고 우려하며 선도교인들을 '불온한 계획을 가진 자들' 이라 규정, 탄압하였다. 황해도 및 평강경찰서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여 54명을 구속하고 15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그러나 주요 인물들은 잠적한 뒤였다.[12]

본 문건 별지의「총독각하께 드리는 보고서」에는 '…십여명이 돈을 빌려 가옥을 건축 중인데 9군데 완성되고 1군데는 기둥만 세운 것을 본 사실을 탐지하였는데, 농사가 아닙니다. 10여 장소가 전부 완성된 후에 通圓 선생과 弘圓 선생이 나타나서 1,080명에게 才術을 敎授하여 역적 음모를 함으로써 머지않아 국가에 대과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10여일 전에 총독각하께 상서하였습니다. 한데, 현재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아무쪼록 국가의 대과를 면하길 바랍니다.…' 라고 돼 있을 정도로, 당시 민감한 사안이었다.[13]

2) 인물과 예언

김홍원과 활동을 함께 했던 황해도 김천의 金龍奎, 李龍奎, 徐仁

煥, 裵洙謙 등도 모두 보천교인이었다. 당시 조직을 주도했던 金洪圓이나 황해도의 車鳳南과 裵洙謙, 강원도의 金明七, 평안도의 張太恒 등은 일경의 수배를 받았으며, 구속된 자는 황해도 道安郡의 金文鎬, 平康郡의 韓贊瑞 · 金東禹, 金化郡의 金錫衡 등이었다. 이들은 취조 과정에서 한결같이 '교의 목적이 조선의 독립'이며, '선도와 조선의 독립은 같은 의미'라고 강조하였다. 1935년 7월경에 작성된 일제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선도교인들의 예언이 들어 있다.

'머지않아 러 · 일 전쟁이 일어날 적에 우리 교주는 러시아의 승리를 틈타 일본과 분리를 꾀하여 조선을 독립하도록 한다', '교의 목적은 교도에게 不食長生의 비술을 전수시켜 신선이 되도록 하는데, 교도가 신선이 되면 신선은 萬王의 王이므로 조선은 선도교가 지배하게 된다', '머지않아 미 · 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교를 믿어 난을 면함과 동시에 미국이 승리했을 때 일제와 絶緣하여 본래의 조선국이 된다' 등이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예언도 서슴치 않았다. '현내면 이목리에 선경을 건설하고, … 군중 집회를 책동하여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집회로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 거사에 반대하는 자가 없다'로 기록돼 있다. 이로 보아 일제는 이들의 집회를 독립운동으로 보았던 게 분명하다.[14]

4. 제주 無極大道 사건

1) 사건의 槪況과 인물

無極大道 역시 보천교인 姜昇泰(承河)에 의해 결성된 비밀결사체로 봐야 한다.[15] 보천교인이 되면 앞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한 나머지 '1924년 2월 21일과 22일에 꿈에 증산으로부터 경

서 5권을 받았으며, 1930년에는 주문을 외우던 중 증산이 나타나 앞으로 10년 간 대성할 때까지 오로지 한 마음으로 수도하라는 신명을 받았다'며, 1936년 1월 27일에 안덕면 동광리 姜渭慶의 집에서 무극대도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오는 庚辰年(1940)에 진인이 나타나 조선을 독립시키고 천자가 등극한다는 예언을 내세워 결사체를 결성하였으니, 이가 무극대도이다. 1936년부터 약 1년 간 도내 12개 면에 사는 약 9백명의 주민을 조직원으로 만들었다. 그 중 간부를 수백명 정하는 등 본격적인 교단을 설립하였으니, 이때가 1938년경이다. 교단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보천교인이었다. 姜錫龜는 5년 간 한문 수학을 한 이로, 1917년경 보천교에 입교한 자다. 정읍의 보천교 본부에 이주하였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1926년경 제주로 돌아온 강석구는 1936년 7월에 강승태의 권유로 무극대도에 입교하였다. 6년 간 한문을 수학하였다는 金昌圭 역시 1920년경 보천교에 입교하여, 한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견문을 넓히기도 하였다. 이는 1936년 3월경 무극대도에 입교하였다. 金泰休 역시 1917년 보천교에 입교하여 간부로 있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1936년 7월 무극대도에 입교하였으며, 강창언도 1917년 보천교에 입교하였다가 1936년 9월경에 무극대도 입교하였다. 吳秉杓, 李斗杓, 金昌豪, 玄始化, 金文一, 姜宗旭, 文斗哲, 金仁玉, 吳禎淑, 張元國, 高斗萬 등도 모두 보천교인으로 있다가 무극대도에 입교한 자들이다.[16]

2) 무극대도의 예언

무극대도를 조직할 즈음의 예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는 1940년 3월, 庚辰年 庚辰月 庚辰日 庚辰時에 제주도 남방 紫鹿島에서 진인 정도령이 나타나서 부하 군졸 수천 수백명을 紅旗를 단 紅船인 太乙船에 태워, 중문면 대포리에 상륙하여 교주 강승

태와 협의한 후에 충남 계룡산으로 들어가 조선을 독립시키고, 천자로 등극한다. 세계를 72개국으로 나누어 지배할 것이고, 그때 가서 각 국의 왕은 물론 일본의 昭和天皇이라 하더라도 1940년에 한하여 廢帝되어 일개 王侯로서 鄭天子 밑에 조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무극대도는 국교가 되어, 교도는 그 성의에 따라 성인 반열에 올라 후천 5만년의 榮樂을 입어 天聖堂, 萬聖堂, 靈堂에 봉사하게 될 것이다.'

1936년 8월 6일, 표선면 토산리 金昌圭의 집에서 강승태는 姜錫龜, 金泰休 등과 降書라며 作句한 '東方皇星落'을 놓고, '수일 전 동쪽 하늘에 황제를 지키는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일본 황제의 운이 쇠하였다는 뜻이며, 앞서 말한 정천자의 출현으로 황후의 자리로 떨어져 조공하여 올 징조이다' 라고 해설을 하며, 독립 의식을 고취시켰다.

1937년 1월 26일에는 안덕면 동광리 梁琪鉉 집에서 다시 '강서'라며 작구한 시를 해설하였다.

紅氣半天日家亡 (홍기가 반천하니 일본이 망하고)
徐市過處回孫失 (서불이 지나가 머문 손자들이 망실하다.)

즉, '1937년 1월 26일 오전 2시경 하늘이 반분하고 붉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일제가 멸망할 징조다. 그리고 일본의 제1대 천황은 중국의 진시황 때 불로불사초를 구하기 위하여 왔던 서불〔徐市〕로, 서불은 명을 받아 동남동녀 5백명을 거느리고 불로불사 약을 구하여 제주도에 왔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제1대 천황이 되었다' 라고 해설하였다. 또한, 1937년 7월 31일에 梁琪鉉 집에서 강석구 외 11명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支那事變의 발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 전쟁은 금후 일진일퇴로 서로 싸우며 1940년까지 계속되지만 결국은 일본이 패망한다. 그때 정도령 천자가 출현하여 일본이나 중국을 평정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강서라며 다음과 같은 詩를 해설하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지나사변의 발발은 일본이 이미 기운이 쇠하고 서불의 자손인 일본이 그 조상의 나라인 중국에게 화살을 쏘지만 중국은 큰 나라이고, 또한 러시아가 중국을 원조할 것이니 당연히 일본이 패배할 것이다. 패잔 멸망하는 일본군의 넋이 방황하며 통곡할 것이나, 러시아도 중국에 동정하며 원조하여 한 번은 일본에 이기지만 결국은 망할 것이다. 미국은 善心으로써 어디에도 붙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 하지만 이 역시 멸망할 것이며, 중국도 중일 사변에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 정도령의 출현으로 온 나라가 하루살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17]

1937년 9월 하순에 高戊生 집에서 '지나사변 발발 이래 비행기 70여대가 행방불명되고, 또 장졸들이 전사한 결과 일본인은 현재 5분의 1이 됨으로써 금후에 혹은 한국인을 군인으로 모집하는 일이 있을 지라도 우리 신도 중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 교도는 현재 730명이지만, 현재의 정세로 보아 우리 교를 공표할 시기가 의외로 빨리 다가올 것이므로, 금년 중에는 꼭 1천명까지 모집할 필요가 있다'

1937년 10월에 역시 고무생의 집에서 '… 전란 이은 흉작과 질병이 일어날 戊寅(1938) · 己卯(1939)년 양 해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우세하여 상호 일진일퇴가 상당히 오래 되지만, 1938년부터는 세계대전으로 진전되면 일본도 1939년부터는 점차 세력이 쇠약해져 패전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때 정도령이 나타나니 1940년 경진년에 해당되고, 정도령의 신통력으로 전쟁을 중지시키고 조선을 독립시켜 세계를 평정할 것이니, 세계 각국은 모두 조공하여 올 것이다.

그리고 지나사변이 오래 계속되면 많은 戰費가 필요하므로 金融이 핍박함은 자명한 것인데, 최근 금융조합에서도 금고를 폐쇄하여 금을 내치지 않은 이유는 조선에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1937년 10월 26일에도 고무생의 집에서 '일본 비행기는 전부 중국 비행기에 습격 당하여 남은 것이 없으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있어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한 대도 없지 않느냐. 또 신문에는 일본이 우세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패전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 하였다. 1937년 12월 7일 역시 고무생의 집에서 '현재 일본은 중국과 전쟁 중이지만 반드시 패배할 운명에 있고 또 3년 내에 모진 병이 유행하여 일본인은 전멸하게 될 것이니, 그 때면 교통기관은 두절되어 현재 일본에 건너가 살고 있는 조선인도 사멸하게 될 것인즉, 만약 친족 중에 일본에 있는 자가 있으면 시급히 불러오도록 하라. 또 3년 후면 조선은 일본과 떨어져 독립하여 옛날 한국과 같이 되고 이 교를 신앙하는 자 전부는 양반이 될 것이니, 지인에게 권유하라' 고 하였다.[18]

1940년에 작성한 무극대도인 金景軾에 관한 공소 내용을 살펴보아도 예언의 내용은 한결같다. 한문을 수학한 김경식은 보천교를 맹신하다가 1936년 10월경에 姜錫龜의 권유로 무극대도에 입교하였다. 김경식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1940년에 진인이 수천의 군대를 태을선에 태우고 와서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내용의 예언을 하기도 하였다.[19]

3) 제주 미륵교 사건의 槪況과 예언

無極大道가 일제에 의해 완전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1942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제주의 梁鵬進 및 보천교인 梁啓超 · 宋泰玉 · 李斗生 등은 1927년에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에 들어갔다.

보천교인 金鍾華의 권유로 미륵교에 입교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대중 집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현재 동서양의 정세를 계절에 비유하자면 동양의 운세는 秋冬이고 서양의 계절은 春夏의 계절에 해당하는 까닭에 조선은 추동의 초목과 같이 凋落하고 서양은 춘하의 초목과 같이 번성한 상태인데, 잠시 후면 서양의 운세가 정반대로 전환하게 되고 조선의 운세가 호전할 터인즉, 이는 음양 두 수의 循環理法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현재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어 있지만 1944년이 되면 현 사회는 몰락하고 동시에 조선의 미륵교 사회인 地上天國 龍華世界가 출현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신자들은 선각자로서 중국의 공자 및 기타 제자와 같이 후세까지 존경하고 추모함은 물론, 고위 고관에도 취임하여 부호가 될 것이다.' [20]

5. 선도계열 예언의 특징

특정한 인간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는 神의 의지가 계시나 예언이라면,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형태들이 '미래 연구' 다. 선도계열의 예언은 분명 초심리학적인 '예지' 나 '계시' 또는 '예언' 일 수 있다. 정감록 신앙이 본 예언의 바탕을 이룬달지, 음양역법의 원리가 예언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 전근대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이나 조선의 독립, 그리고 주변국과의 역학 관계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모습은 '예언' 이라기보다는 '정세 분석' 에 가깝다. 앞서 살펴보았겠지만, 선도계열에서는 일제의 패망 연대를 대체로 1940년과 1944년 양 해로 잡고 있다. 실제 패망 연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연 이들의 예언을 초심리학적인 단순 예언으로 볼 것인가. 아니라면, 이들의 예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들의 예언은 주로 증산의 '계시'나 '강서'로 구성돼 있다. 대체로 전통적인 비결이나 역의 원리가 가미된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내용은 결코 초심리학적인 예지나 계시일 수만은 없다. 예컨대, 은유적인 시구나 계시문의 해석에는 지극히 현대적인 정세 분석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직설적이며 과학적인 예언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로 보아, 이들의 예언은 전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漸移期의 형태를 머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 이것이야말로 이들 예언의 특징이랄 수 있다. 이들 예언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시간적으로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점이기에 생성된 만큼, 전근대적인 예언과 현대적인 미래 연구가 혼재돼 있다는 점이다. 즉, 초심리적인 요인과 정세 분석이라는 미래 연구의 양 요소가 뒤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신문에 일본의 우세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패전을 호도하는 데 불과한달지, 지나사변이 오래 계속되면 많은 戰費가 필요하므로 금융의 핍박함은 자명하다며 최근 금융조합에서도 금고를 폐쇄하는 등 금을 내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예언을 뛰어넘는 정세 분석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적 미래 연구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② 일제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나름대로 예측을 한 데는 직관과 유추가 동시에 작용하였던 것같다. 세상을 두루 겪은 다양한 이들의 결사체는 일반인들 그 이상으로 세상 돌아가는 추세에 밝다. 기본적으로 일제하의 仙道系라 함은 현실 정치에 반감을 갖는, 이른바 정치적 야심가들의 집단이기도 하다. 이들의 이러한 분위기는 비교적 정확한 정세 분석을 낳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22] 예컨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나 결국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이 독립이 된다든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드문 것은 일본의 전력이 쇠약해져 있

는 반증이라는 등의 예언은 세상 돌아가는 추세를 읽고 있다는 반증이다. ③ 이들의 예언은 곧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모델링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미래에 안주하는 게 아닌, 미래의 삶을 제시하고 이를 만들어가려는 역동적 의지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작게는 교세 확장에 이용되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예컨대, 조선이 독립이 되어 평등 사회가 도래된달지 하는 예언의 영향으로 결사조직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시의 선도세력은 고달픈 민중들에게는 희망이요, 의지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가 잦다는 것은 그만큼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것 역시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선도계열의 예언 역시 종교적 차원을 넘어 당시 일제 하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깃들여져 있다. 또한, 이 같은 예언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秘訣이나 易의 원리와 무관치 않으나, 당시 특수한 사회의 불안 요소를 극복하려는 의지이자 대안이었던 셈이다. 부안의 원군교 사건이나 평강의 선도교 사건, 그리고 제주의 무극대도 사건에서와 같이, 이들 예언은 하나 같이 후천 선경 세계의 도래와 조선 독립을 염원하는 것이었다. 이를 기존 학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후손들과 국가보훈처의 보훈 심사를 맡고 있는 연구자들 간의 시각만큼이나 분분하다. 앞서 말한 전봉균과 강양원 등 관련자들 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추서와 그리고 왜곡된 추서 내용으로 볼 때, 연구자의 선입견에 따라 사건의 성격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도계열은 증산의 당시 세계관 및 사회 인식인 '후천지상 선경사

회'를 한결같이 희구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적어도 일제 하라는 시대적 모순은 증산이 말한 지상 선경사회와는 역행된다는 점이다. 일제 하의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이나 동만주의 공산주의 세력 모두가 조선의 독립 이후의 대안으로 각각 민주주의 공화정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을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조선의 독립 이후의 사회를 지상 선경사회로 그려 놓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종교로 발전하기 직전의 '정치적 결사체' 또는 '정치운동'이라는 기본 성격을 갖는다.

과거의 예언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는 결정론적인 미래관이라면, 현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갈 미래 예측인 구성론적 미래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도계열의 이 같은 예언은 결정론적 미래관에서 구성론적 미래관으로 옮아가는 漸移期的인 현상라 할 수 있을 것이다.*2002.4.29*

〈부록〉

일명 '원군교 사건' 관련 증언 자료(1)

1. 녹취일시 : 2002년 2월 27일(수) 오후 4시
2. 녹취장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마을회관 옆 金又坤(74세) 씨 댁 마루에서
3. 증언자 : 김우곤(74세) 씨
4. 필자 주 : 변산면 지서리는 옛 산내면 지서리다. 내변산에서 서해안 쪽으로 맞닿아 있는 데가 지서리이다. 일제시대 원군교 사건을 증언해 줄 한 분을 찾다가 마침 유일하게 이곳 토박이로 알려진 김우곤 씨라는 분을 만나 증언을 듣게 되었다. 곧바로 녹취에 들어갔고, 당시 증언 내용 중 반복되거나 자료로써 무게가 덜한 군더더기를 뺀 나머지 내용을 정리하였다.(안후상)

……

안후상 : 1940년 초반에 이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신 홍순옥이라는 사람을 아는지요?

김우곤 : 사실 아까는 내가 의심을 했재. 무슨 목적으로 녹음기를 갖다대는 지는 모르지만 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안 : 녹음을 하는 것은 순수한 학술 목적입니다. 전에 발표했던 학술논문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 원군교를 하는 이들이 1940년 전후해서 일제가 멸망하기를 기원하는 滅倭祈禱를 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한다는 이유로 당시 경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했거든요. 그들 중에는 고문으로 사망한 자가 둘이나 되고, 불구나 신체 장애를 겪은 사람도 있어요. 당시의 공판 기록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옥사한 두 사람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서했어요. 보여드린 논문('선도계열의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 알재, 홍순옥 씨를 알고 있재. 내가 어렸을 때여. 그 분은 노래를 아주 잘 했재.

안 : 노래라니요?

김 : 장구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렀지. 그 아들 셋도 노래를 아주 잘 했재.

안 : 혹시 재인이었습니까? 노래라는 것은 판소리이고요?

김 : 그렇재. 판소리재. 그 판소린가 하는 노래를 아주 잘했재.

안 : 공판 기록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하던데?

김 : 농사도 지었재. 그러나 소리를 해서 먹고살고 그랬재. 먹고사는 건 괜찮았재.

안 : 잘 살다니요?

김 : 그렁께 환갑이다 뭐다 하여 부르면 가서 노래를 불렀재. 그래서 쌀이다 뭐다 받아서 살았응께. 그런디, 그땐 지서리가 참으로 못살았을 때재. 홍순옥 씨가 그때 지서리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주었재. 암, 도왔재. 참으로 풍채도 크고 자상하고, 배운 것도 많았재. 좋은 분이재.

안 : 그 분의 형님도 기록에 나오던데?

김 : 아, 있재. 홍순문이라고 바로 옆집에 살었었재. 큰집 작은집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형은 바로 그때 죽었재.

안 : 언제 죽었나요?

김 : 왜정 땔 것이여. 그때 바로 죽었응께.

안 : 그 아들들은 지금 어디서 살아요?

김 : 홍순옥이 아들? 아, 그 아들들도 모두 지금은 죽었재. 몇 년 안 되재, 죽은 지가.

안 : 혹시, 그 당시 그 분들이 무슨 종교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김 : 아까는 내 드러내고 싶지 않아 말을 안 했는디, 교를 했재.

안 : 혹시 차천자교(보천교)라고…?

김 : 아먼, 차천자교를 했재. 그래서 자주 하얀 옷을 입고 정읍에 갔다오고는 했재. 그것이 좀 안되긴 했어도…, 나머지는 참 좋은 분들이었어.

안 : 그것이 안 좋다니? 차천자교를 해서 안 좋다는 겁니까?

김 : 그렇재. 차천자교를 한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곤 했다고 들었재.

안 : 저도 그렇고, 일부 연구자들은 차천자교를 독립운동을 한 단체라고 봐요.

김 : 내 어렸을 땐 게 잘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응께. 당시는 차천자교를 하면 망한다고들 했재. 재산을 바치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다보니,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재. 그것 때문에 교를 하면 망한다고들 했재.

안 : 홍순옥 씨가 왜놈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는 등 정치운동을 했던 것은 기억나세요?

김 : 우린 몰랐재. 그러나 그 분들, 그러니께 차천자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쪽(현재 마을 회관 뒤편으로 개울이 있는데, 개울 건너 마을을 지칭한 듯함)에서 모여 살았재.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왔응께. 그리고 늘상 하얀 옷에 통관을 쓰고 저 산을 넘어 정읍엘 갖다오곤 했응께. 그런데 무슨 이상한 모습은 있었재.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응께. 워낙 비밀이 많았으니께, 우린 모르지만서도 무엇인가 이상했었재. 지금 생각하니.

안 : 당시 선생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김 : 나? … 열댓살 정도 되었었재.

안 : 그럼 당시 홍순옥 씨와 관련된 얘기를 모두 해주십시오.

김 : 그렁께, 뭘 들을려고 그려?

안 : 일제의 경찰들에게 탄압을 받은 기억 같은 거 생각 안 나세요?

김 : 암, 감옥에 갔었재. 해방되기 3년 전쯤인가, 홍순옥 씨가 감옥에 갔다왔었재. 왜 갔는 지는 내력은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분명 있었어.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글도 잘 알고 하여 뭔가 특별한 데가 있었다고 생각했재.

안 : 아는 것이라면?

김 : 글을 배웠응께. 묘자리도 봐주고 날도 받아주고 했재.

안 : 원래 홍순옥 씨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 전라남도 담양이 고향이라고 하던데요?

김 : 여기 사람은 아니재. 어딘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여기 사람은 아니었어. 일행도 있었재. 대여섯 집이고, 여자도 있었고….

안 : 정읍은 왜 갔는 지는 모르세요?

김 : 모르지. 그러나 차천교를 한다고 매일 어디를 갔다 왔응께. 정읍에 갔다온다고들 알았재. 통관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재. 상투 틀고 하진 않고, 갓도 쓰진 않았어도 하얀 두루마기를 입었재.

안 : 그 분의 아들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 : 아들은 영호와 영표, 태표 이렇게 셋 있었재. 모두 노래를 잘 불렀재. 말하자면 소리꾼이었어. 영호는 고수였재. 유명했재. 텔레비에도 자주 나왔응께. 영호 아들들도 소리를 잘 하재.

안 : 아까 홍순옥 씨가 뭔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감시 같은 건 없었습니까?

김 : 감시는 없었는데,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재. 들은 것은 없었는데, 독립운동과 관계된 눈치였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숨기는 뭐가 조금은 있었어.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아니어. 여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재. 없는 사람들 쌀도 주고, 아주 좋은 양반이여. 그리고 아까 차천자교라고 할라고 했었재. 무신 일인가, 잘 몰라서 얘기 안 한 것이재.

안 : 당시 지서리는 서로 돕고 사는 등 인정이 많았던가봐요.

김 : 아먼, 요즘처럼 삭막하지는 않았재. 당시에 더 인심이 좋았재. 요즘은 칼날같은 세상이어. 지금 선생이 녹음을 하면 혹 뒤에서 뭐라도 하나 두렵재.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겪어서.

안 : 걱정 마세요. 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요. 정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김 : 아무튼 홍순옥 씨 일행이 독립자금을 걷는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재. 그걸 했을 지도 몰라. 당시는 그 분들이 뭔가는 달랐으니께.*

일명 '원군교 사건' 관련 증언 자료(2)

1. 녹취일시 : 2002년 2월 20일(수) 오후 2시
2. 녹취장소 : 전북 김제군 부량면 금강리 201(전화:546-9032) 황석현 씨 댁 거실에서
3. 증 언 자 : 황석현(실제나이 83세, 호적나이 85세) 씨
4. 필자 주 : 전에 입수한 황석현 씨 진술서(강양원 관련 증언) 사본을 보이며 먼저 확인을 했다. 그러자 황씨는 처음에는 묻는 의도가 뭐냐고 연신 물었다. 의도는 없고, 오로지 논문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황씨는 암환자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시력과 거동이 좋지 않아 보였다. 이런 황씨의 증언을 곧바로 녹취하였고, 중복되거나 자료적 가치가 덜한 군더더기를 제외한 내용을 간추렸다.(녹취 및 정리 : 안후상)

안후상 : 이 진술서 필체는 아드님 것인가요?

황석현 : 예, 그렇소만.

안 : …진술서와 관련된 사건이 원군교라고 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사건 관련자 두 사람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고 하는군요. 앞의 두 사람 외에는 서훈 추서가 안 돼 있고요. 형평성 문제를 후손들이 제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단지, 당시 본 사건과 관련된 선생님의 진술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황 : 조사해서 뭐하게요?

안 : 선생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논문(한국신종교학회 워크숍에서 발표한 '선도계열의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초록집을 보여드리며)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녹취의 다른 의도나 뜻은 없고요.

황 : 아무튼, 전에도 누가 와서 묻길래 내가 얘기를 하고 내 아들이 받아 썼소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건 없소. 1942년 경

찰에 투신하여 부안서(부안경찰서)에서 강낙구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전광업이라는 당시 조선인 고등계 형사를 통해 알았소. 그것(진술서) 한번 읽어주시오.

(처음부터 진술서를 읽어내려갔다.)

황 : 내가 강낙구(강양원) 씨를 60년대 우연히 만났소. 그때 강낙구 씨가 나보고 은인이라며 매우 반겨합디다. 당시 나는 군산경찰서에 있었는데, 강낙구 씨가 유리안구를 끼고 있었소. 왜정 때 형무소에서 그랬다고 합디다. 다리도 절었는데, 역시 그랬다고 합디다.

안 : 당시에는 이 사건이 어땠습니까? 큰 사건이었습니까?

황 : 암, 큰 사건이었지. 그런데 나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접근을 못했소. 독립자금을 준 지 안 준 지도 알 수가 없재. 단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는 부안군 산내면 지서리에 불온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수색 나간 적은 있재. 변산 지서리로 나갔는데, 순사 된 지 얼마 안 돼서야. 선배들을 따라 나섰재. 나중에는 유치장 근무를 했는데, 그 사건 내역은 잘 몰랐재. 함께 근무하던 조선인 형사 전광업이에게 들어서 알재.

안 : 전광업이란 사람은 조선인 치곤 성공(?)한 형사네요. 그 분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황 : 그 사람은 고등계에 있었어. 당시 같은 동료라도 전부 비밀이야. 그러나 조선 사람들끼리는 서로 암암리에 충고도 해주곤 했지. 지금 어디 사는 지 모르지만, 그 분이 나에게 독립자금을 모아서 어디에 전해주었다는 얘기를 했재.

안 : 어디에 전해주었다고 하던가요?

황 : 그건 모르재.

안 : 이외, 다른 것은?

황 : 공출반대, 징용반대, 신사참배 반대 등을 했겠지. 당시의 불온사상이란 이런 것들을 했으니. 다 그렇게들 생각했지.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재. 그래서 징역 주기도 하고 사형 당하기도 했지.

안 : 진술서에 나타난 내용 모두를 전광업에게서 직접 들었나요?

황 : 그렇지. 들었을 뿐이지.

안 : 저는 보천교 연구를 했어요. 보천교 아시나요?

황 : 잘 알지, 후댄코우(ふてんこう)라고.

안 : 혹시, 보천교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황 : 차경석이라는 분이 1936년엔가 돌아가셨다고 어느 잡지에서 봤어. 내가 절에 갈 때 대흥리를 지나갔는데, 당시 보천교를 봤재.

안 : 절에는 왜?

황 : 당시에는 승려였거든.

안 : 아, 그랬어요? 어느 절에서?

황 : 백양사여. 당시 백양사 강원에서 공부를 했재. 강원에서 집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대흥리를 거쳐 다시 돌아가는데, 당시 '조광(朝光)' 이라는 잡지에 차경석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온 거야. 오래 된 일이지.

안 : 백양사 강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절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때 황씨는 매우 반가워하며, 어디서 승려 생활을 했느냐고 물었다. 승려가 아닌 불교기관 소속 연구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자, 자세를 가다듬으며 백양사 강원에 대해 한없이 얘기를 하실 태세였다.)

황 : 강원에서 주로 불교 능엄경을 읽었지. 당시 기한이 4년이었지. 내 은사 스님은 석두 스님이야. 석두 스님을 시봉했재. 불교

도 파가 있었어. 족보처럼. 연담파와 백파가 있었지. 백파는 백학명 스님이 중심이었고, 연담파는 만암 송종원 스님을 중심으로 하였재. 만암 스님 상좌가 석두 스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암 스님의 손상좌인 셈이지. 상현이라고도 하지. 나는 백양사에서 사미계와 비구계를 다 받았지.

안 : 절에 계시다가 어떤 계기로 경찰이 되었습니까?

황 : 내 동창이 이만기야. 구례에 살았지. 그래서 구례에 놀러가는데, 당시 '독립선언서' 글이 참 좋아. 그래서 소지하게 된 거야. 구례 토지면 동방내를 거쳐 안정면 수청리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검문을 받게 된거야. 검문에 순사가 내 품에 있던 '독립선언서'를 발견한 거야.

안 : 당시 승려 신분이었나요?

김 : 아니지, 환속했었지. 구례 동창 집에서 한 달간 머무르고 집에 와 보니, 요시찰 대상이 되었어. 나더러 오라가라 하는 거야. … 그리고 당시 전쟁터에 안 끌려가기 위해, 그래서 경찰하기로 하고 시험을 보았지. 일본어가 서툴러서 안 되고, 바로 윗동네 사람이 군산 시청에 다녔는데, 군산의 어느 전당포 점원으로 넣어줬지. 그때 일본말을 배우게 된 거야. 당시 고향이 김제군 봉남면이었는데, 군산으로 왔다갔다 했재. 그러면서 일본말을 배워 시험을 봐 합격했재. 내선일체 3기로 교육을 받고 1940년 부임한 거지. 당시 서울 광화문에 경찰 강습소가 있었어. 나중에 서대문구 냉천동 형무소 부근에 강습소가 새로 만들어졌지. 전국의 수강생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전북은 25명이었지. 동기 중에 송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는 부안경찰서에 1942년에 배치되었지. 첫 외근 근무가 바로 그 사건, 강양원 씨 관련 사건이었어.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지. 우리는 일반 순사였어. 고등계는 일반 순사와는 달라. 나는 유치장 근무를 주로 했재. 그때 손옥당이라는 중국인이 들어왔어. 스파이라는 거야. 송옥당에게는 예쁜 여자가 있었지. 고등계 형사는 손옥당을 3일 간 유치장에 넣을 수 있지. 스파이로 몰아 유치장에 일단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손옥당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나보고 자기 집에 가서 약을 좀 가져다주라는 거야. 약을 넣어주는 건 서장의 결재가 있어야 해. 그런데 금방 죽을 듯이 하는 데 어쩌겠어. 그래서 손옥당이 집으로 갔지. 그런데 손옥당이 집에 고등계 형사들이 긴 칼을 차고 가택 수색을 하다가 나를 봤어. 나는 약을 가지러 왔다며 손옥당이 여자에게 얘기를 했지. 종지에 싼 새까만 약을 가지고와서 유치장에 넣어주었지. 그런데 문제가 커졌어. 당장에 근신을 당한 거야. 3일 간이야. 내가 부안의 용담여관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전광업이가 나보고 조심하랬어. 고등계 형사들이 내 뒤를 밟고 있다는 거야. 조선인끼리는 그랬어. 서장이 나중에 시말서를 쓰라고 하고서는 용서해주더라고. 이후 파출소로 발령받았어. 줄포에 있는 주재소야. 주재소 나가기 이전에 전광업이에게 들었어. 증산교를 빙자하여 독립자금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 붙잡혀 왔다는 거야.

안 : 독립자금은 어디에 제공했다고 하던가요?

황 : 모르지. …임정이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정을 몰랐어.

안 : 당시 관련자 두 사람이 옥중에서 죽었어요. 그 사실은 모르십니까?

황 : 모르지. 당시에는 붙잡혀 오면 비밀리에 심문했기에, 아무도 모르지. 간부들만 알았지. 나는 해방되고 난 후에 간부가 되었지.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

안 : 지금 선생님 연세는?

황 : 호적은 85세, 실제 나이는 83세요. 당시에 경찰을 하려고 하

니, 미성년이더라고. 그래서 호적을 고쳤재.

안 : 일제 때 경찰 근무는 어땠어요?

황 : 열심히 했재. 근신 당하면 징용 당하니께. 무서워서라도 착실히 근무했재.

안 : 부안서 다음에 어디에서 근무를 했나요?

황 : 줄포주재소였지. 줄포소에 있을 때 강도도 한 명 잡았재.

안 : 당시 줄포는 도시 측에 들었지요?

황 : 암, 그랬지. 당시에는 줄포가 컸지. 경찰서가 있었는데, 부안으로 옮기고 대신 주재소가 새로 생긴 거야. 수석이 경위보였어.

안 : 인촌 김성수에 대해 얘기해 주실래요?

황 : 암, 그 분의 원파농장이 줄포에 있었어. 인촌 선생도 가끔 내려왔지. 내려올라치면 경계 나가재. 말하자면 감시 나가는 거지. 나는 몰래 인촌을 찾아가 뵙기도 했지. 그분 아들하고 나하고는 또 친했으니께. 인촌을 만나면 나는 큰 절을 했지. '아무개 순사입니다.' 하면 '암, (순사도) 해야지.' 라고 친절히 맞아주었지. 그 분의 아들이 김상기인데, 징용을 피하기 위해 줄포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재. 나하고 친했지. 내 속마음은 그런 유대가 있지.

안 : 그 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황 : 그 후에는 정읍에서도 근무를 했지.

안 : 혹시, 공비 토벌대장 차일혁을 아시나요?

황 : 암, 알지. 차일혁이 부대장을 했지. 당시 경감이었어. 나는 해방된 뒤에 경무반장(인사담당)을 하면서 차일혁, 김두운 등 전투부대를 이끌었던 지리산 205 부대를 잘 알았지.

안 : 차일혁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시겠어요.

황 : 차일혁은 학병 출신일거야. 대학 다니다 학병으로 끌려갔다 해방 된 뒤에 경찰로 들어왔지.

안 : 차일혁 관련 책을 보니,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나와 있던데.

황 : 그건 모르지. 나는 차일혁과 같은 학병 출신 김운영이나 김두운 등만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차일혁도 학병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당시 무궁화 2개였었지.

안 : 보천교와 차일혁과의 관계는 혹시 못 들으셨나요?

황 : 못 들었소.

안 : 백양사 얘기를 좀 해주세요.

황 : 백양사에 5년 있다가 집에 와보니, 모친께서 … 그래서 두어 달 있다가 가니, 절에서는 나보고 결혼을 했다며 나가라고 해. 그 때가 18세였지. 어머니가 살망실어 절에 가는 것을 …그래서 절에 대한 미련도 사라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픈 생각이 들어. 불교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당시 만암 스님이 "너 이놈, 장가갔으니 오지 마라." 해. 장가 간 것은 아닌데, 오래 있다가 와보니 이런 말을 들어. 석두 스님은 아예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싶어 밤에 절을 떠나온 거야. 나중에 부안에서 순사를 하고 있었을 때지. 효봉사라는 절을 짓는데 두 분이 오셨지. 어찌 반가워야지. 그래서 내가 모셨지. 가실 때 차표도 타 드리고. 당시 차는 버스였지. 부안에서 정읍으로, 다시 장성 가는 버스를 타지.

안 : 당시 버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황 : 버스는 버스인데, 지붕은 펄렁펄렁한 포장으로 된 버스야. 간신히 비만 피하게끔 돼 있어.

안 : 기차로도 갈 수 있지요?

황 : 기차로는 신태인에서 출발하여 장성 사거리에서 내려 담양 가는 버스를 타고 약수쟁이에서 내려 약 십리를 넘게 걸어요. 허영터영 걸어 절에까지 가지. 절에 가면 학생이 7,80명이나 돼. 9시까지는 못 자. 아침 4시에 예불을 드려야지. 예불 끝

나고 1시간 가량 참선하고 조반 먹고 강당에서 글을 읽지. 당시 강사는 선운사 주지 배운기 스님이야. 그 분은 불경을 가르쳤고, 서응 스님이 불교학을 가르쳤지. 일본어로 된 불교사전을 교재로 선택해서. 서옹 스님은 일본 구택대학에서 공부를 했지. 이외, 수학, 기하학, 체조도 가르쳤지. 조선역사를 모르게 가르쳤고, 정구(테니스)와 축구도 했고, 철봉도 했어. 불경, 능엄경, 화엄경, 원각경 등을 했어.

안 : 체조는 어느 분이 가르쳤나요?

황 : 체조는 서응 스님이 가르쳤지.

안 : 백학명 스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황 : 백학명 스님은 학자이시지. 주로 내장사에 계셨고, 구암사에도 계셨지. 이 분을 따르는 파가 백파지. 구암사와 내장사가 근거지야. 연담파는 백양사와 개암사, 선운사가 해당된다고 보아야지. 그리고 함평 용천사와 불갑사 등이 해당되지. 나는 방학 때만 되면 용천사에 주로 있었지. 그 생활이란 신선생활이지. 용천사에 있을 때 손기정이 배를린 마라톤 일등 하고, 그때 일장기 말소 신문을 그 당시에 보았지.

안 : 백파와 연담파 간의 알력은 없었나요?

황 : 알력 같은 건 없었어. 당시 저것이 백파다, 연담이다 했지. 나는 연담파로, 백양사에 가면 큰 비석이 있는데, 연담파 계보로 내 법명이 새겨져 있어. 법명은 지석(知石)이지만 득주(得珠)라고도 했지.

안 : 강원에서 유교서는 안 읽었나요?

황 : 안 읽었지. 나는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미리 공부하고 출가했지. 12세에 출가했어. 그래서 쉽게 공부했던 것 같아.〈끝〉

주

1) 미래 연구를 하는 未來學(futurology)은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미래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초이나, 1960년대 이후부터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2) 일제의 여러 공문서나 관변 자료에는 '仙道'라 표기돼 있다. 이 외에도 '무명의 비밀 조직' 또는 '무명의 결사 조직'이라 표기돼 있다. 그러나 스스로 仙道라 하는 대목도 있다. '이들은 황하의 물이 인도에 도달하니 불교가 나왔고 중국에 도달하니 유교가 나왔으며, 근세에 조선에 도달하니 仙道가 나올 시운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조직을 仙道로 불렀던 것 같다.' (光州地方法院濟州支廳, 『刑事事件簿(1940년 형공합 제2호)』, 정부기록보존소.)

3) 全州地方檢察廳, 『刑事裁判書原本』, 정부기록보존소, 1944.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에는 田鳳均과 함께 姜在淑이 옥사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1977년 이들에게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4) 김제시 부량면 금강리 20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황석현의 1차 증언(1999.4.11)을 재확인하는 과정(2002.2.20)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

5) '공적 조서'(국가보훈처)에 나타난 田鳳均은 姜陽元과 함께 당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미결 380일 통산)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심한 고문으로 옥사하였다. 조서 내용에는 '1942년 5월 7일 전북 부안군에서 일제의 패망을 기원하며 조선 독립과 주권 국가 건립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아 복역 중 순국(옥중 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증산교로서 유사종교단체의 활동에 비추어 건국훈장 애족장에 해당하는 분으로 사료됨'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강봉균의 실제 추서 내용은 '대통령 표창'이다.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에도 증산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 추서 내용이나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하는 관보가 기본적으로 왜곡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봉균과 강재숙 외 다른 관련자에 대한 추서나 공적 조서가 일체 없어, 보훈 심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6) 姜陽元은 선도교 간부로, 일제 패망을 기원하는 집회를 열고 독립 자금을 모으다가 일제의 수배를 받던 중 부안 변산 월명암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치안유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1944년 1월 10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미결 380통상)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1944년 5월 6일에 석방되었으나, 수감 중에 눈동자와 힘줄이 튀어나오는 심한 고문으로 허리가 망가지고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다. 그 뒤 약 4년 동안 허리를 쓰지 못하는 등 평생을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전북 정읍에서 1975년에 타계하였다. (강양원의 조카 강진식(원

광대 인문대 국문학과 교수)의 증언(2000. 12. 25, 강진식의 자택에서).) 앞의 강진식에 따르면, 강진식의 친형 희병이 '숙부인 강양원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서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았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숙도 숙부인 강양원을 따라 변산으로 들어가 함께 결사운동을 벌였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강양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공훈록』제7권(국가보훈처), 53쪽.)

7) 全州地方檢察廳,『刑事裁判書原本』, 정부기록보존소, 1944.

8) 全州地方檢察廳,『刑事裁判書原本』, 정부기록보존소, 1944.

9) 보천교이었던 이들은 보천교 탈교자들을 주로 입교시켰으며, 입교 자격은 남자로서 15세 이상 달해야 했다. 세간에서는 이들의 결사체를 千八敎, 神仙敎, 仙道敎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全州地方檢察廳,『刑事裁判書原本』, 정부기록보존소, 1944.)

10) '仙道敎의 不穩計劃에 관한 件' (平高秘第 839號,平康警察署,1935.7.26.). 본 건은 경성지방법원검사와 조선총독 앞으로 보내는 1935년 7월 26일에 작성된 경찰비밀문건이다. '치안유지법 위반 및 사취 피의사건 검거에 관한 건' (平高秘第1,461號,平康警察署,1935.6.14.) 역시 마찬가지이다.

11)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 조선에 교도가 분포돼 있는데, 그 중 황해도와 강원도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12) '仙道敎의 不穩計劃에 관한 件' (平高秘第 839號,平康警察署,1935.7.26.).

13) '仙道敎의 不穩計劃에 관한 件' (平高秘第 839號,平康警察署,1935.7.26.). '치안유지법 위반 및 詐取 被疑 사건 검거에 관한 건' (平高秘第1,461號,平康警察署,1935.6.14.).

14) '仙道敎의 不穩計劃에 관한 件' (平高秘第 839號,平康警察署,1935.7.26.).

15) 눈이 어둔 姜昇泰는 보천교 본소에서 파견나온 姜錫鎬, 辛百斤, 金時山 등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鄭道令이 나타나 천하를 통일하고 등극하는데, 이때 보천교인 모두는 神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보천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16) 光州地方法院濟州支廳, 『刑事事件簿(1940년 형공합 제2호)』,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17) 日蚊胡境魂哭時 (일본 모기가 호경에서 넋이 통곡할 때) 露蜂支那哀亡情 (노서아 벌은 중국 쇠망에 동정하네) 米國蠅善心自哭莫 (미국 파리는 선심하면서 스스로 곡하지 마오) 支那萬里○○日靑 (중국 온 천지는 하루살이로 날이 개었네) (光州地方法院濟州支廳, 『刑事事件簿(1940년 형공합 제2호)』, 정부기록보존소.)

18) 光州地方法院濟州支廳, 『刑事事件簿(1940년 형공합 제2호)』, 정부기록보존소.

19) 光州地方法院濟州支廳, 『刑事事件簿(1940년 형공합 제2호)』, 정부기록보존소.

20) 光州地方法院濟州支廳, 『刑事事件簿(1942년 형공합 제54호)』, 정부기록보존소.

21) 비결이나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는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는 直說法과 方術로 알아내는 風水法, 事物에 가탁하여 알아내는 寓意法, 글자를 분석하여 알아내는 破字法 등이 있다.

22) 이들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미래를 걱정하고 예측하는 일들이 이들의 주요한 일이었다. 특히, 이들의 接賓客 풍습은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수집하는 효과가 있었다. 내 집을 찾아오는 기인, 달사들이야 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달해 주는 뉴스전달 매체이기 때문이다. ② 동경이나 경성에서 신문명을 접촉했던 이들이 구성원 중에 있었다는 점도 이들의 예언을 미래연구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한 근거가 된다.